매일 아침 1분 화염검 뚫기

(창3:22~24)

22.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24.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매일 아침 1분 화염검 뚫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 중 첫 번째 1분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화염검 뚫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작가 미야케 히로유키가 쓴 책에 대한 소개를 봤는데, 책 제목이 '매일 아침 1분으로 부자 되기 연습'입니다.
영어로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One minute one action in the morning will lead you rich life!' 아침마다 1분 한 가지 행동을 하면 그것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1분이라는데.
그런데 1분으로는 못하겠더라고요.
부자로 만드는 아침 습관을 몸에 익히자고 하는 제목으로 그 밑에 소제목들이 나오는데, 책을 읽지 않아도 대충은 알겠어요.
첫 번째는 '그날 일어날 일을 미리 감사하자!' 아주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 '아침에 가장 먼저 현관을 청소하자!' 부잣집치고 현관이 더러운 집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침마다 거울을 닦고 웃음을 지어 보인다. 마음을 담아서 식탁에서 인사한다, '잘~~~ 먹겠습니다! ~~' 이걸 15초 동안 하라는 겁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깔끔하게 버리자!' '휴일에도 평상시처럼 기상하자' '아침마다 꿈과 비전을 되새기자!'… 뭐 이런 것들.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아침마다 1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아침마다 주어지는 첫 번째 1분에 한 가지만 하게 되면, 여러분의 여생은 지금까지의 인생보다는 확연하게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에덴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과일을 따먹을 거 아닙니까?
과일을 따먹을 때마다 봤던 게 선악과나무입니다.
'저거는 먹지 말아야 돼, 저거는 먹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에덴동산에서의 삶은 아침 첫 번째 1분에 선악과를 안 따먹는 일을 하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주어지는 낙원의 삶이 계속해서 매일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과일을 따먹을 때마다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타락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침마다 첫 번째로 세수하기 전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침대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면, 십자가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동산의 경계가 화염검으로 둘러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염검으로 둘러쳐진 에덴동산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1분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을 따먹고 내가 살아야 될 오늘 하루 땅에서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화염검을 뚫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안으로 들어가서 에덴의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는 삶을 약속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건강하게만 사는 삶을 약속드리지는 못해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손대는 것마다 형통할 거라고는 약속드리지 못하지만, 아침마다 첫 번째 1분에 십자가 열매를 따먹으면, 그것도 따먹는 방식이 있어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따먹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십자가 열매를 따먹으면 화염검을 뚫고 에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하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에서 하나같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나 자신에게 좋고 나쁜 것을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하니까 높아진 것 같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최악의 일이 일어난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기에게 관계되는 일과 상황과 만나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건 내게 유익할 것이다, 이건 내게 해로울 것이다'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행 중에 최악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명나무 실과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되짚어 봐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는 삶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영멸은 뭡니까?
영멸과 영생을 같이 놓고 생각해야 영생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제약이 없이 중단 없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멸도 마찬가지에요.
영멸도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겁니다.
지옥의 삶도 영원해요.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영멸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멸도 영원히 사는데, 멸망 가운데 처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은 뭡니까?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영원히 사시는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눈치 챌 수 있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세례 받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땅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렇게 연합하면 기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여러 가지 속성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

할 수 있지만, 살아계심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그 살아계심이 어떤 형태인가 하는 것은 연합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신 하나님, 그 영원한 살아계심의 내용이 바로 연합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멸과 반대로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연합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람의 마음이 무엇과 연합을 합니다, 무엇과 연합을 해서 제대로 연합이 되고 온전한 일체가 될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도 그러한 영생적인 특징과 내용들은 우리에게서 경험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그렇게 지으신 것이고.

그래서 생명나무는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을 따먹는 나무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쁨을 먹는데, 그 기쁨은 지속되는 기쁨, 나에게서 그 기쁨이 물러갈 수는 있지만 그 기쁨 자체는 지속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쁨이 주렁주렁 맺히는 게 바로 생명나무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그 영원한 속성을 가진 기쁨을 따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곳이 에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쫓아내십니다.
쫓아내니까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마음이 무엇인가와 연합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으니까 비어있는 채로 못사는 겁니다.
무언가와 연합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쁨의 자리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습성을 오늘 본문에서 '생명나무 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본성상 그쪽으로 오게 돼있다는 얘깁니다.
근데 생명나무 길이라는 건 어디로 간다는 얘깁니까?
변함이 없는 기쁨, 지속되는 기쁨,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인간들은 오게끔 돼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게 됐지만, 인간이 열심히 사는 모든 행동들이 어느 방향으로 모아지고 향하느냐 하면 지속되는 기쁨을 얻기 위한 쪽으로 오게 돼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속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은 에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화염검을 둘러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왜 사업을 합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붙잡았어요, 양파껍질 벗기듯이 벗겨보면 돈을 붙잡은 거죠.
돈이라는 것과 마음이 온전하게 연합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만큼 버는 것이 돈과 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삶과 내 마음이 연합을 합니다.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기쁨이 생겨요.
축구선수가 시합에 들어가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승리요 골을 넣는 거예요.
골을 넣게 되면 기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아닌 겁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또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해요.
그리고 돈을 벌 만큼 벌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돈에 대해서는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돈을 더 많이 더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아, 이제 명예를 얻어야 하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무리 좋은 차도 사고 명품으로 칠을 해도 마음에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돈 벌 때는 기뻤는데 일 년 지나니까 그것도 시들합니다.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공허가.
그러니까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간은 지속되는 기쁨,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연합하는 대상의 성질에 따라서 그 대상이 주는 기쁨이 결정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영원하지 않은 돈과 연합해서 얻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 자식과의 관계는 내가 먼저 죽으면 그 관계가 끊어지고,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식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내 건강도 마찬가지에요.
내 미모 때문에 기뻤어요, 미모가 영원합니까? 그러니 기쁨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 별 짓들을 다 하지요.
어떤 연예인들 보니까 갑자기 얼굴이 풍선처럼 돼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에 무슨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뚱뚱하게 똥그랗게 풍선 불어진 것처럼 나오는지 몰라요.
미모를 유지하려고 싸워보는 겁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미모라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 미모가 주는 기쁨도 영원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라는 대상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러니 기쁨이 영원하고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러한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게 돼있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발걸음은 생명나무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고, 지금도 이 상징적으로 불 칼이 둘러쳐 있는 에덴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차원에 관계돼서 이 에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화염검으로 둘러쳐져서 영원한 기쁨으로 못 오게 했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가능한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왜 결별하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무슨 대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안 주십니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인간 스스로가 주체성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체성을 발휘하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이 못 들어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으면 '하나님, 내게 들어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자발적으로 주체성이 포기돼야만 됩니다.
주체성이 뭡니까?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나를 위해서 소원하는 것, 그 소원한 대로 뛰는 것, 이게 다 포기돼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주체성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질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께 맞춤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지 않고,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인간은 몸부림치게 돼있는데,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 그리고 바다 속에 깊이깊이 빠지면서 고통과 우울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명나무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본성이니까.
근데 인간이 못 들어오게 화염검으로 둘러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화염검은 특별히 그 화염검이 태울 재료를 염두에 두고 만든 화염검입니다.
여러분, 인화성 물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연성 물질이라고도 하고.
반대는 불연성 물질입니다, 불연성 물질은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화성이나 가연성 물질은 불에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태울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화염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잘하고 싶은 이유는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도달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가다가 이 불에 부딪칩니다. 그래서 속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잘 키워서 마음이 자식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자식을 통해 영원한 기쁨에 도달하려고 가다보면 생명나무 길로 가게 돼있어요, 본성이니까.
그렇게 되면 속이 탑니다, 그 불 칼에 부딪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붙잡고 있어서 온전한 연합(마음이 붙잡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다보면 반드시 속이 타잖아요?
불 칼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화염검은 무엇을 특별히 겨냥해서 만든 불인가 하면, 태우고 싶은 것을 겨냥해서 만든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그 태우고 싶어서 만들어진 그 불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불에 의해서 탈 인화성 물질을 제거해버리면, 아무리 불 칼이 둘러쳐 있어도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죠?
마치 소방관들이 불연성 물질의 재료로 만든 소방관 옷을 입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진화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화염검이 특별한 재료를 향해서 만들어진 불인데, 이 불에 잘 탈 수 있는 인화성 물질을 내 마음에서 제거해버리면, 얼마든지 불 칼이 지키고 있어도 뚫고 들어가서 에덴에서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생명나무, 영원한 기쁨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못 들어오게 하신 화염검의 성질을 알아서 인화성 물질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걸 모르고 뛰어들면, 사업을 해도 자식을 키워도 정치를 해도… 뭘 해도 전부 영원한 기쁨의 자리에 서기를 원해서 가다보면 생명나무 길로 들어서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짚을 뒤집어쓰고 불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속이 타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화성 물질입니까?
그게 바로 나의 주체성입니다.
화염검을 뚫고 에덴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쟁취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것을 마음에서 제거해버리면 돼요.
그 판단에 의해서 생각이 생기죠? 내 생각을 없애버리면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갖는 소원을 없애버리면 돼요.
그게 다 내 인생에 대한 주체성의 표현이니까.
지금 요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길 때, 그 바람이 있으면 반드시 속이 탑니다.
그 바람을 없애면 안 타요.
인화성 물질이 제거되었으면 화염검이 아무리 들끓어도 거기를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기쁨의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을 끓고 있는 이유는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있어서 그래요.
이걸 태워버려야 돼요, 이걸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앱니까?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이 불 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장소가 우리로부터 격리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가다보면 불에 부딪치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타요.
왜냐하면 마음이 인화성 물질로 가득 차있으니까.
내 주체성은 인화성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느냐?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십자가는 따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으면 망하는 거고, 십자가 열매는 따먹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연관성을 갖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체가 죽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겠습니까?
죽으면 에덴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불 칼이 불길을 노엽게 일으켜도 나를 태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주체성이 포기되고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만나니까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생을 누리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이 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이 몸을 통해서 표현될 때는 내가 움직이지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장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 1분은 어디다 쓰느냐?
십자가 열매 따먹으면서 마음에 있는 인화성 물질을 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인화성 물질이 있으면 그 인화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고, 그게 생각이고 계획이고 소원입니다.
그 움직임은 반드시 생명나무 길을 가게 돼있고, 가다보면 반드시 불 칼에 부딪쳐서 속이 타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하게 살겠어요? 속 타본 적이 한두 번이에요?
내 속을 태운 게 한두 가지 일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또 속 탈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왜 속이 타요? 인화성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이 뭡니까? 내 생각이고 내 소원 내 판단이에요.
그걸 십자가에서 죽여 버립니다.
인화성 물질을 다 제거해버리면 에덴동산을 그냥 마음대로 들락거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아침마다 에덴에 들어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돈 벌겠다고 애쓸 것 없어요, 돈 벌어도 영원한 기쁨은 안 주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돈 없어도 영원한 기쁨이 주어져서, 돈 없는데 웃게 된다니까요.
그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돈 버는 건 예언 못해도…
끝까지 건강할 것은 예언 못해도, 아무리 아픈 중이라도 사도바울처럼 몸에 말뚝 같은 가시를 박고 있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질 수 있어요.
자식이 어떻게 돼도, 내가 선악과로 빚어진 이 불행을 십자가로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

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식까지도 인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사는 모습이 가장 강력하게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게 자식이니까.
특별히 애를 써서 자식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이거 왜 안 해요?
여러분, 평생 돈 벌려고 했잖아요, 얼마 벌었습니까?
하루 중에 돈 벌겠다고 몇 시간 투자해서 살았습니까?
자식 위해 투자한 시간이 얼마인데, 여러분의 자식이 얼마나 대단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이 결산을 손에 쥐고도 아직까지도 인화성 물질을 갖고 생명나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또 속 탈라고? 그만큼 속이 탔으면 됐지. 이거 미련한 짓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로 매일 아침 1분 십자가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야 됐지만 십자가 열매는 따먹으라고 준 거예요, 안 먹으면 망한 채로 사는 거예요.
계속 속 탈 일만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 열매 따먹고 내 속의 인화성 물질을 다 제거해버리면, 에덴은 저절로 내 앞에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약속이에요.
십자가 열매 따먹으면 성령을 통해 내려오셔서 나와 연합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조금 기다려보세요.
1분 동안 십자가 따먹으면서 잠깐 기다려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귀는 일도 대화하고 만나고 하는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30분이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연합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 가지면 그때부터 이 세상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는 삶을 삽니다.

매일 아침 첫 번째 1분, 십자가 열매 따먹고 인화성 물질 제거하자!
이거 하나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영멸이 아닌 영생으로서의 삶,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 이

제 더 이상 불 칼에 부딪쳐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삶이 중단되게 해주시옵고, 매일 아침 첫 번째 1분 동안 십자가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삶의 판도를 바꾸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